

10.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산책을 나갔다.
- ② 늦깎이로 시작한 연기 생활이었던 만큼 그 길이 순탄치 않았다.
- ③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
- ④ 몸을 나지막히 눕혀 날아오는 화살을 피했다.
- ⑤ 코는 뚱뚱하고 입은 넓죽해서 볼품이 없다.

1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객지에서 고생하는 그를 생각하니 참 안되었다.
- ② 내가 온 지도 닷새나 되었다.
- ③ 이제까지 배운 대로 해라.
- ④ 두 달만에 비가 왔다.
- ⑤ 배는 먹은 만큼 부르케 되어 있다.

12.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았았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 ① 철호 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 방송을 타면서 수많은 독자들이 성금을 보내 왔다.
- ② 원숭이는 야자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를 뒹다.
- ③ 우리는 함양에서 출발하여 지리산 줄기를 타고 남원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 ④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퍼진다.
- ⑤ 소매치기는 사람들이 복닥거리는 틈을 타 여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훔쳤다.

13. 다음 글에 <보기>의 문장을 첨가하고자 할 때 가장 알맞은 곳은?

세계화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기호, 이미지, 상징들이 결합된 상품들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진실과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정보와 이미지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은 개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 절약, 검소, 협동, 양보, 배려, 공생 등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은 이제 쾌락, 소비, 개인적 만족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규범들로 대체되고 있다. ㉢ 그래서 개인적 경험의 장이 넓어지는 만큼 역설적으로 사람들 간의 공유된 경험과 의사소통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 파편화된 경험 속에서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인식적 지도’를 그리기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

< 보 기 >

개인들의 다양한 삶과 경험은 사고와 행위의 기준들을 다양화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정체성은 해체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유무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이는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변화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의 제작기술이 디지털화하면서 더욱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디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기존 매스미디어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니라 콘텐츠 창작자 혹은 콘텐츠 제공자가 일반 대중과 쌍방향적으로 교류, 소통하게 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고, 이것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온라인게임, 디지털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터넷콘텐츠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들이 이에 속하며, 기존의 영화, TV방송물의 문화콘텐츠들도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반응과 평가에 의해 그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발달한 미디어 환경에서 대중이 직접적으로 창작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매체와 논의의 장이 무한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선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얻은 일반 대중의 창작물들이 메이저 프로젝트로 발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① 기존의 문화콘텐츠들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 ② 미디어와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 ③ 온라인게임, 디지털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은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들이다.
- ④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콘텐츠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 ⑤ 콘텐츠 창작자와 대중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15. 다음 시조의 화자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은?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 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淸風 혼 간 맛져 두고
江山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① 말 업슨 靑山이오 態 업슨 流水 | 로다
갑 업슨 淸風과 님자 업슨 明月이라
이 中에 病 업슨 내 몸이 分別 업시 늙그리라
- ② 菊花는 무슴 일노 三月春風 다 바리고
落木寒天에 네 홀노 푸엿는다
아마도 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호노라
- ③ ㅁ음이 어린 後 | 니 호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형혀 권가 호노라
- ④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호물며 못다 핀 곳이야 날러 므슴 호리오
- ⑤ 靑草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엇는다
紅顏을 어되 두고 白骨만 무쳤논이
羞 자마 勸호리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16. 다음 글을 소재로 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자산(子産)은 어진 재상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그가 진수와 유수를 지나다가 백성들이 물을 건너느라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자기의 수레에 함께 타고 건너게 해주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그러나 맹자는 자산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자산은 은혜롭기는 하나 정치를 할 줄 모른다. 11월에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작은 다리를 놓고, 12월에 수레가 지나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를 놓으면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데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군자가 정치를 바르게만 한다면 길을 가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좌우로 물리치고 다녀도 괜찮을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다 기쁘게 해주려고 한다면 날마다 그 일만 하여도 모자랄 것이다.”

『맹자(孟子)』, <이루편(離婁篇) 下>

- 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 ② 정치인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된다.
- ③ 정치인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 ④ 정치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정치인은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7.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생도 처연해져 한탄하기를 마지않으며 말했다.

“차라리 낭자와 함께 구천에 갈지언정 어찌 하릴없이 홀로 남은 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에 난을 겪은 뒤 친척과 종들이 각각 어지럽게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은 어지러이 들뜬에 굴러다닐 때,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사 지내고 묻어주었겠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써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써 장사지낸다.’라고 했는데 낭자는 이를 모두 다 실천하였으니 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오. 감격스러움은 한량없고 자괴감을 이길 수 없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렀다 백 년 뒤에 함께 묻힙시다.”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올라 있으니 더 오래 보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 세상에 연연해 하면 명을 어기는 것이니 나에게 죄를 줄 뿐 아니라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입니다. 저의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주시려거든 바람과 햇빛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 잘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자취가 없어졌다.

이생이 유골을 수습하여 부모님 묘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 또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몇 달 뒤에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그의 리를 사모하지 않음이 없었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 ① 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과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②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인물의 행적과 품성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전개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 ⑤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고독이 해소되고 있다.

18. 다음 글의 서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독’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addict’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매달린’ 또는 ‘속박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는 중독들-특히 화학적 중독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매년 얼마나 될까?

니코틴은 고도로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며 그것에 중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흡연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질환에 의해 사망하는 미국인은 매년 50만 명에 달한다. 심지어 간접흡연으로부터 야기되는 질환에 의한 미국 내 사망자 수도 5만 명이나 된다.

알코올 역시 사람을 죽이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능숙한 킬러이다. 비록 알코올의 섭취에 일말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긴 하지만, 알코올 섭취로 인한 폐해는 이를 압도한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알코올 남용으로 야기된 질환으로 사망한다. 음주 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도 무시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50만 명이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며, 알코올 중독자의 수만도 100만 명 단위에 달한다. 이 외 다른 중독성 정신 변성 약물들(코카인, 헤로인, 아편 등등)의 전 세계적인 희생자 수는 매년 대략 100만 명 이상 발생한다.

모든 중독은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며, 그 대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대가를 야기하는 중독성 약물을 제조하고, 판매와 배포를 촉진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커다란 부담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 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근거의 신빙성을 얻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설명 대상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단어의 어원을 밝힘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 ⑤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19. ㉠과 ㉡에 가장 알맞은 접속어는?

언어의 기능은 의사소통이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주위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 언어의 주요 기능이며, 실상 언어 발생의 동기와 목적이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인류문화가 아주 원시적이었던 선사시대에는 단순한 의사소통만으로 언어가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었다. (㉠) 인간의 사회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인류문화가 발달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청자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화자의 음성이 미치지 못하는 거리나 시간에 처해 있는 보이지 않는 청자와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부족국가가 형성되고, 정치체제가 성립되면서 지방행정관에게 명령을 전달할 필요성도 생겼고, 자기가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후손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보이지 않는 독자를 위해 시나 소설을 짓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였다. 전화도 녹음기도 비디오투도 없었던 시절, 발성하자마자 한 리(里)도 못 가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음성은 간접적인 의사소통에는 전혀 부적당한 매개체였다. (㉡)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초월해서 의사를 전할 수 있는 언어의 매개체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문자가 나오게 되었다.

- ㉠ ㉡
- ① 그런데 - 그리고
 - ② 그러나 - 그리하여
 - ③ 그런데 - 하지만
 - ④ 그리고 - 그래서
 - ⑤ 그러나 - 그리고

20. 다음은 어떤 글에 관한 개요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 바람직한 노사관계

I. 서론 : (㉠)

II. 본론

1. 노사 분쟁의 원인

(가) 노사 간의 이해 부족

(나) 분배의 불공정성

2.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가) 노사 간의 상호 신뢰 구축

(나) 경영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 부여

(다) (㉡)

III. 결론 : 상호 이해와 공정한 분배에 바탕을 둔 노사관계의 정립

- ① ㉠ 노사관계의 의미
 - ㉡ 경영 성과에 따른 공정한 분배 보장
- ② ㉠ 바람직한 근로자상과 기업가상
 - ㉡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 구축
- ③ ㉠ 기업의 활성화 방안
 - ㉡ 경영 결과에 따른 성과급 보장
- ④ ㉠ 기업의 활성화 방안
 - ㉡ 근로자의 사기 진작
- ⑤ ㉠ 노사관계와 기업의 윤리
 - ㉡ 근로자와 사용자의 책임 분담